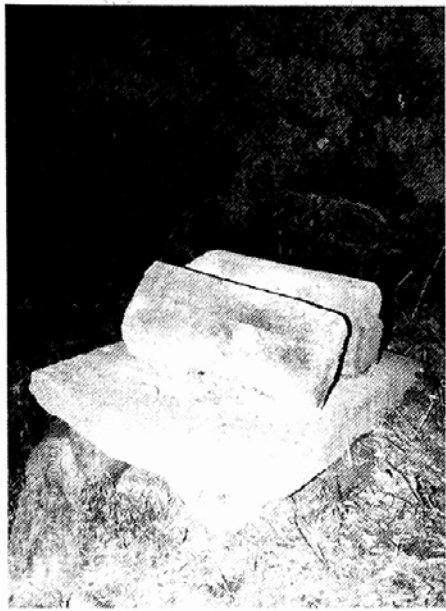


폭우속 도둑맞은 고려석탑



◇고려 3층 석탑의 도난으로 기단석만 남아있는 안성 죽산면 장계리현장.

지난달 안성 3층탑 1기 사라져 비지정 문화재 많아 보호 시급

폭우가 내리는 틈을 타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탑이 갑작같이 사라졌다. 6월 20일 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에 세워져 있던 고려 3층석탑 1기가 사라졌다. 비지정 문화재인 이 탑은 30년 전 주민들이 장계리 남산기슭에 있던 탑을 마을 정자리에 옮겨온 것으로, 높이 1미터가 조금 넘는 아담한 탑이었다. 탑이 있던 곳에서 1m거리에 살고 있는 장계리 주민 홍 모씨는 "새벽 2시에 차소리가 나서 잠을 깬지만 비가 내려 차가 도랑에 빠진 줄 알았다"며 "탑의 도난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안성의 죽산면 일대는 각종 석탑, 미륵당의 태평미륵과 봉암사지, 가솔리 쌍미륵과 공예미륵 등 불교문화재가 산재해 있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라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식용으로 개인 정원이나 목장 등에 옮겨지는 사례가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장마철에는 인적이 뜸하고 빗물이 발자국이나 차바퀴자국을 씻어주기 때문에 문화재도난이 잦아 이에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형진기자

파라미타 국제캠프 25~28일 고성잼버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25일부터 3박4일간 고성 세계 잼버리 야영장에서 부처님과 함께 즐거운 세상'이란 주제로 제 5회 파라미타 국제캠프'를 연다. 국내의 청소년 2천5백여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에서는 모험·신행·참배·수상 활동으로 나뉘어 과정 활동이 진행된다. 또 '미디어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청소년의 대처방안'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며, 폐영식날 이에 관련된 결의문을 발표한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연합 법회와 축제, 지도자 리셉션 등이 열린다. 신청마감은 10일까지이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02-723-6165 김주일 기자

부산 대불어 연꽃축제 초등생 4백여명 참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 연합회 부산지구(회장 지현)는 6월 24일 부산불교회관에서 제17회 연꽃문화축제를 개최했다. 4백여명의 부산지역 초등학생들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관세음보살님을 닮은 어머니'라는 주제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날 참가어린이들은 포스터 공연단의 축하공연과 사물놀이, 단소연주,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천미희기자

부산 순국선열 추모열기

내원정사·진여원 천도재 봉행

부산 내원정사와 진여원이 각각 호국영령 천도재를 봉행했다. 내원정사(주지 정런)는 6월 25일 제21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천도재 및 선망부모천도 지장기도 회향대법

회를 봉행했다.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안상영 부산시장을 비롯한 1천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는 영령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발원과 헌화, 분향이 이어

졌다.이날 고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것이니 호국영령들도 인연 따라 몸을 바꾸었을 뿐 본래 가고 올이 없어 영원과 함께 하고 있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일상생활중에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진여원(주지 주인)은 6월 22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호국 영령 위령제와 보훈가족 위안잔치를 봉행했다. 천미희기자

차암련 회장에 듣는다 茶·도에 등 문화포교 특화

강화사암련 선암스님

"사람특성에 맞는 용공제 다도시연회 등 문화행사 시행을 통한 지역문화발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강화도 13개 사암으로 이루어진 강화사암연합회 회장 선암스님(적석사 주지·사진)은 "불교가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며 "불교전래의 관문이었던 강화도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려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를 위해 보문사 용공제, 전통사 다도시연회, 백련사 다도, 무애원 도예, 연동국제회관 외국 인체협, 강화포교당 어린이 청소년 포교, 선암사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답사 등 사찰별 특색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시행과 노인잔치, 부처님오신날 예술공연, 군부대 위문품 전달, 청소년장학금 지급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화사암련은 강화경찰서에 전통차집을 만들어 경찰서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차를 시음토록 하고, 경찰서 여직원 대상 다도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강화문화회관에서는 강화사암련 주최로 백련사 주지 혜성스님이 일반시민 대상의 다도교육을 매주 진행 중이다. 김원우기자



"사암련이 지역사회의 공동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스님과 신도들의 유대가 중요하다"는 스님은 "매년 9월 불교신도연합회 체육대회 행사에 사암련 소속사찰의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대거 참가하는 전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사암련은 앞으로 지역간 연대강화를 위해 인천사암연합회와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며, 지역 군장병 포교를 위해 무애원에서 준비하는 여름수련회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암스님은 1975년 현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현재 강화사암련연대 운영위원과 조계종 교육연수국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기자

바다와 함께 가자! 부다피아 캠프

태안반도·안면암·간월암 등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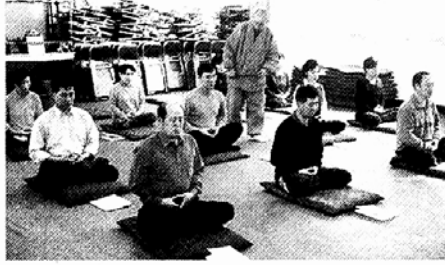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양남의 주인공이 될 새책 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4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연다. 무인도가 그림처럼 펼쳐진 기도도량 안면도 안면암, 백제의 미소가 아름다운 국보 서산 마애삼존불, 절세들의 낙원 간월암, 태안반도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서해안의 갯벌탐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뜻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1년 7월30일(월)~8월1일(수) 2박3일
◇장 소 : 태안반도 국립공원 안면도 안면암.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선재이벤트

간월암, 서산마애삼존불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00명)
◇참가비 : 5만원
◇준비물 :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구, 세면도구, 모포
※출 발 : 30일 오전 10시 조계사
도 착 : 8월1일 오후 5시 조계사·봉은사
◇문의 : 전화 0502-317-2555
02-722-4162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협 찬 : (재)보덕학원, 현대대중문화, 현대불교신문회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총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봉은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군산에 불가기공 '바람'

승월스님 일반인에 좌선·선무 가르쳐
군산지역에 불가기공 바람이 불고 있다. 성흥사 주지 승월스님(태고종 전북총무원 포교국장)은 좌선, 선무공, 선체종 등으로 이어지는 불가기공을 통한 지역포교에 나서고 있다(사진). 군산불교회관에서 주 3회, 군산학생회관 주 2회, 군산 노인대학 월 2회, 성흥사 주 2회 개최되는 불가기공 프로그램에 일반인과 불자들이 몰리고 있다. 여기에서 비정기적으로 공군부대와 군산교도소 신원단체에서도 불하기공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조계사 전북지사장

조계종

금산사 심선수련회

김계 금산사(주지 도영)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심선(心線)수련회를 개최한다. 금산사 심선수련회는 도영스님의 '금산사와 미륵신앙' 강의, 참선, 미륵상부경 독송, 삼악참회, 삼보일배, 108배, 신선계수계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631548-4440-2.

태고종

전북 총무원장 향산스님

전북교구 지방총회장은 6월 26일 총무원사가 있는 전주 보문사에서 제40회 임시지방총회(총회의장 진관을 열고 류향산 스님(사진)을 11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향산 스님은 "승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라며 "위로는 원로, 중진 스님들의 가르

종단소식

침을 받들고 종도들의 작은 소리에 도 귀를 기울여 화합의 원칙아래 평등하게 총무원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부원장에 법운스님(남원 관음사)과 승전스님(정읍 일광사)을 각각 선출했다.

진각종

11명 스승 기로진원
한평생 증생교화와 불법홍포를 위해 전력을 소모 대장사, 심전화(도안심인당), 복지원(경경심인당), 정심화(진심심인당) 대전수 등 11명 스승의 기로

진원 및 퇴임식이 6월 22일 경주 보문단지 내 아리원웨딩홀에서 봉행됐다. 이날 각해 총인과 효암 통리원장, 혜정 교육원장, 휴명 종회의장 등 종단 스승들과 신교도 7백여명이 참석했으며 각해 총인과 효암 통리원장은 스승들에게 기념패와 기념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회당학원 가족체전
회당학원(이사장 지광)은 19~20일 1박 2일간 위덕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제2회 회당학원 가족체전을 개최한다. 이번 체육대회는 위덕대, 심인종교, 진선여중 등 회당학원 산하 전체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 소속 백혈화(정원 심인당), 정심화(진심심인당) 대전수 등 11명 스승의 기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서울 종로구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평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02)396-2736 · HP 010)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래방인에게 면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이 적시(高示)에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高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일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특사의 효용에 증점을 주어 난해한 육강을 바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원의 시간만 걸러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4차로는 간단이 안되는 각종 육강비밀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읍니다.

예를 들어, 천하인이나 사관이나 무속집이나 현인이나 사람이 현역서거나 천하인이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승상(承上)인사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읍니다. 이렇하면,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성상이 학한지 성한지 ●디에게 이익을 사할인지, 피해나 손해나 할 지 사할인지 무익한인지
-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배운 것이요, 미리 그 육강을 정리해 놓은 사람의 육강과 지식을 바꾸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으로서의 「카르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도 담고,

- 익숙인이 좋지 안을지,
- 돈이 잘지 안을지, 원디엔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재물이 잘지 안을지, 원디엔 언제 될지,
- 일태이가 남아있지, 이어있지, 수습해 날 이어있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할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시 당하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속하기 좋을 것인지,
- 형이상 사할지 죄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남은 미안인지, 죄를 할 수 있는지, 죄를 할 것인지, ●재물부터 차도가 있게 될 것인지, ●재물이 순조롭게 되겠는지
- 부실함을 찾을 수 있는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은 사할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할인지, 해가 될 사할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覆)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제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신사 · 상명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승경사 · 승경사 · 모지사 · 기후사

天參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능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454-3733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치의 금옥보다 나누나... (本草綱目)

●延年不老 仙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